“어느 신인의 문예지 소개 부탁에 정신 번쩍 들었죠”

강진 출신 김재석 시인 문예지 ‘물과별’ 창간
연 2회 발간 “창작기회·공정한 문단 풍토 마련”
36명 게재…‘물과별’ 신인상에 배인숙 시인

날로 문학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한다. 책을 읽지 않는 독자가 점차 늘어난 것도 요인이지만 책 외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많아진 탓이다. 문학을 하기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문예지나 문학 전문지를 발간한다는 일이다.

최근 강진과 목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인이 시 문예지를 창간해 눈길을 끈다.

강진 출신인 김재석 시인이 주축이 돼 창간한 시 전문지 ‘물과별’이 그것. 제호 ‘물과별’은 강진이 낳은 시문학파를 대표하는 시인 김영랑의 작품에서 따왔다.

“물 보면 흐르고/ 별 보면 또렷한/ 마음이 어리면 늙으뇨// 흰날에 한숨만/ 끝없이 떠돌던/ 시절이 가엽고 멀어라…”(‘물 보면 흐르고’ 중에서)

최근 김재석 시인은 전화 통화에서 “이번 문예지는 갈증을 풀어주는 ‘물’ 같은, 길 잃은 이들에게 이정표가 되어 주는 ‘별’ 같은 역할을 ‘물과별’이 할 것”이라며 “외롭고 낮고 쓸쓸한 소외된 문인들에게 작품 발표의 기회를 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시인은 남도를 배경으로 ‘목포’, ‘그리운 백련사’, ‘조금새끼’ 등 의미있는 창작집을 발간했다. 1990년에 ‘세계의 문학’에 시로 등단한 김재석 시인은 2008년에는 유심신인문학상 시조부문에 당선됐다. 오래 전에 교직에서 명예퇴직 한 그는 시와 시조 장르를 넘어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문예지 ‘물과별’은 계간지가 아닌 년간 2회 정도 낼 계획이다.

그가 문예지를 창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지난해 어느 신인으로부터 받은 전화가 계기가 됐다.

“작품을 좀 발표하고 싶은데 안내해 줄 만한 문예지가 있으면 주선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한다. 사연인즉, 예술인 복지재단에 예술인 등록을 하려면 몇 해 동안 작품활동 한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그동안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갖지 못해 예술인 증명서를 신청하지 못했던 것.

주간을 겸하고 있는 김 시인은 “예술인 복지재단

문예지 ‘물과별’을 창간한 강진 출신 김재석 시인. 〈광주일보 자료사진〉

뿐만 아니라 개인 창작기금을 주는 단체들이 대부분 몇 해 동안 발표할 작품을 제출하라고 한다”며 “작품 발표할 기회를 갖는 문인들 중에는 뛰어난 작품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줄이 닿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줄’이 없거나 아주 뛰어난 시인이 아니고서는 작품을 지면에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게 현실다. 더욱이 지난 2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인들이 작품 발표는 고사하고 생계가 위협받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다. 언급한대로 지명도가 낮거나 흔히 말하는 ‘문단정치’와는 거리가 먼 시인들이 문예지에 작품을 게재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김 주간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적은데다 준비 기간이 짧아 문예지를 창간하는 데 난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히 이전에 편집을 배워뒀던 터라 어느 정도 내 손을 넣을 여력이 됐다”고 밝혔다. 원고료는 어떻게 충당하는지 물었더니, 그는 “이번 창간호에 모두 36분이 작품을 보내줬다. 이분들께 문예지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원고료를 갈음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웃었다.

책에는 김문배, 양성우, 임원식, 주전이, 주정연, 최재환, 허형만, 김길전 시인의 작품과 기획특집으로 고규석, 이상인, 오천수 시인의 시가 실렸다. ‘물과별’ 신인상으로 당선된 목포 출신 배인숙 시인이 작품 ‘커서’ 외 9편도 수록돼 있다.

김 주간은 ‘닻’을 올렸으니 힘이 닿는 데까지 문예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말미에 의미있는 말을 붙였다.

“문단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공정하지 않은 문단의 풍토에 좌절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스스로 길을 내는, 정말로 문학이 좋아 글을 쓰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코로나 시대 ‘고립과 연결’ 과감한 색 입히다

서기문 작가, 5월31일까지 갤러리S ‘메타버스’ 초대전
팬데믹 주제 형광색 차용 등 낯선 시도…수채화도 전시

사회의 흐름에 민감한 촉수를 갖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팬데믹’은 작가로서의 많은 고민과 질문을 던져 주었다.

항상 ‘시대 정신’을 중심에 두고 작업했던 서양화가 서기문(전남대 교수) 작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노무현, 닥터 노번 베쑨, 촘스키, 앤디 워홀 등 한 시대를 견인했던 역사 속 인물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동행’ 시리즈를 제작해왔던 그라면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가 작업의 주제가 됨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오는 5월 31일까지 갤러리S(관장 이명자·광주시 남구 서서평길 2)에서 만나는 작업 결과물은 과감한 시도가 다소 낯선 느낌으로 다가온다. ‘메타버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주제면에서도, 기법과 색채 면에서도 급격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서 작가가 팬데믹 상황에서 주목한 건 ‘고립’과 ‘연결’이다. 얼핏 서로 상반된 의미처럼 보이지만, 둘은 기이하게 조합되고, 작가의 작품을 통해 ‘연결의 힘’으로 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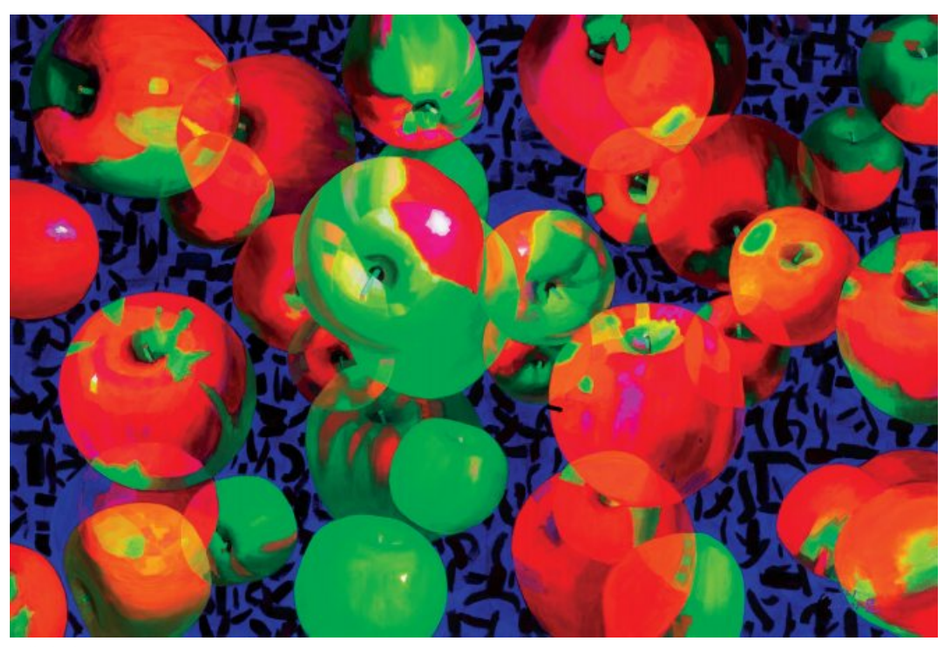
“코로나로 고립됐지만 오롯한 섬은 아니었지요. 고립된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연결됐습니다. 새로운 연결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늘 시대를 품고 작업하는 저에게 놓칠 수 없는 소재였죠. 변화된 그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건 너무 평범하고 재미가 없어 상징과 은유를 중요한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고민 끝에 소재로 삼게 된 건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인 지구와 닮아있다고 생각한 ‘사과’였다. ‘메타버스’ 시리즈를 통해 소행성을 의미하는 ‘사과’를 우주로 던져 놓았고, 각각의 사과는 단면과 색깔이 이리저리 중첩되면서 다채로운 이미지를 구현하고 새롭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초연결’을 의미하는 ‘케이블’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며 케이블은 서로 모여 작품 ‘케이블 꽃’(Cable Flower)으로 완성됐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연결되고자 하는 지 질문을 던지고, 답해본 작품입니다. 우리가 경쟁을 하며 살지만 결국 우리가 연결을 통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 안정, 행복의 ‘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재 만큼이나 강렬한 것은 ‘색채’다. 왠만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형광색을 과감히 차용했다. 형광색은 가볍고, 저급하고, 키치적 느낌이 강해 작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색이다.

“생각해보면 고화질 액정화면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이미 시각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진입한 셈입니다. 고전적 색상 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싶었습니다. 너무 밝고 가볍고 경박한 느낌이 드는 형광색 속에 미술적 장치를 쓰고 색의 대비를 통해 ‘또 다른’ 색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단순히 화려함을 넘어, 그 화려함 속에 차분함과 가라


‘메타버스’

앉음을 함께 넣는 게 고민의 핵심이었습니다.”

눈과 어우러진 동백과 난초를 수채화로 담백하게 그려낸 작품은 서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번 전시에서는 붉은 튤립과 눈이 함께 한 ‘아름다우면서 고 강인한’ 시리즈 등 은은한 수채화 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다.

‘메타버스’ 시리즈 속 ‘사과’는 따스한 햇살을 받은 수채화 작품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사과가 주는 구도와 색의 미묘한 변화는 놀랍고 어떤 과일보다 조형성이 뛰어나 자주 작업하게 된다”고 말한다.

서 작가는 이번 고민의 결과들이 다음 작품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대표작 ‘동행’ 시리즈에 이번에 다루기 시작한 색채를 반영하고, 사실적 묘사 대신 과정과 왜곡을 통해 조형성에 변화를 주는 등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생각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GB작가 스튜디오 탐방 조정태 작가를 만나다

올해 두 번째 GB작가스튜디오탐방으로 조정태 작가를 만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조 작가 작업실에서 촬영한 인터뷰 영상을 광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에서 25일 공개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민중미술 작가인 조 작가는 이번 영상에서 그림을 시작하게 된 이유, 작업에 임하는 태도 등의 작업관, 미술단체 활동과 중국 레지던시 경험을 통한 작업의 변화 과정 등을 들려준다.

조 작가는 대학 졸업 이후 오랫동안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광주민족미술인협회 등의 활동을 통해 현실 문제에 주목했다. 최근에는 민중미술의 어법에서 작업 방식을 변화시켜 ‘별이 된 사람들’ 등의 작품을 통해 대자연이 지닌 생명력과 무한함 등을 서정적인 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조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공립미술관 추천 작가-전문가 매칭 지원 ‘생동하는 기억, 감각의 은유’,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별이 된 사람들’ 등의 다수 기획전, 9회의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작가스튜디오탐방의 프로그램 목적인 작가 연구에 대한 담론을 보다 확장시키기 위해 조정태 작가를 지역에서 활동하는 양초롱 비평가와 매칭했다. 양 비평가는 그로노블 2대학(프랑스)에서 미술사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해동문화예술촌 관장으로 재직중이다. 비평가의 작가 연구 결과물은 (재)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달빛내륙철도 구축 기념, 달빛 어린이 ‘우정의 화음’

광주·대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30일 광주문예회관서 한 무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박주현)이 오는 3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제134회 정기공연 ‘Friendship Concert’(프렌드십 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구축 기념 공연으로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합창무대를 선보인다.

또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광주CBS 소년소녀합창단과, 광주가톨릭평화방송 ‘FIAT DOMINI’ 소년합창단을 초대해 활짝 핀 봄을 노래하는 우정의 무대를 펼친다.

첫 번째 무대는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이종완 작사, 이규빈 작곡의 ‘섬돌 밑에’를 시작으로 ‘방울새’, ‘섬집아기’, ‘Turkish March’를 부른다. 이어서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이 ‘Takadamu’, ‘나의 기도’, ‘바람의 빛깔’, ‘인사는 마법의 힘’을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른다. 세 번째 무대는 광주가톨릭평화방송 ‘FIAT DOMINI’ 소년소녀합창단의 무대로 ‘아베 마리아’, ‘사슴이 물을 찾듯이’, ‘오 얼마나 큰 신비인가’를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한국가곡 ‘청산에 살리라’를 시작으로 대금 솔로와 함께 ‘님의 노래’, ‘옹헤야’, ‘아름다운 나비’를 선보인다.

전석 1만원.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613-8246.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리꾼 최경열의 동편제 ‘수궁가’ 완창 무대

28일 빛고을국악전수관 무료

소리꾼 최경열〈사진〉이 제638회 목요열린국악한마당(28일 오후 5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박봉술 바디 수궁가’ 완창 공연을 선보인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최경열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로 운산 송순섭을 사사했다. 정통 통편제인 ‘수궁가’와 ‘흥보가’도 완판을 모두 익혔다.

‘박봉술 바디 수궁가’는 다른 수궁가 바디에 견주어 우조성음이 많아 더 씩씩하고 꿋꿋한 소리이며, ‘고고천변 대목’은 다른 수궁가 바디에 없는 사설과 가락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또 ‘날짐승 상좌다툼이’ 없는 대신 ‘길짐승 상좌다툼’이 모두 평우조로만 짜여 있어 동편제의 예스럽고 소박한 멋을 느낄 수 있다.

최경열 소리꾼이 들려줄 동편제 수궁가는 송만갑-박봉술-송순섭으로 이어지는 정통 동편제로, 최경열은 동편제의 특징인 호탕한 소릿길과 툭툭 던져내는 성음을 잘 간직하고 표현하는 것

이 인상적이다. 고수는 송재익, 박명언 명고가 맡는다.

관람료 무료. 매회 공연은 유튜브 채널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통해 서비스된다. 문의 062-350-4557.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